캐나다와 탄소포집·청정석탄 협력

정부가 캐나다와 그린에너지 기술협력에 나서 탄소포집, 청정석탄 등의 그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지식경제부는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그린에너지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(MOU)를 2월14일 체결했다.

양국은 탄소포집 및 저장과 재생에너지, 스마트그리드, 열병합발전, 친환경자동차 등 분야에서 전문가 인적 교류와 공동 연구개발, 실증 프로젝트 등을 함께 추진한다.

양국은 조만간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확정, 연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.

지경부 관계자는 “캐나다는 탄소포집 및 저장과 청정석탄 등 기술분야에 강점이 있어 관련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”으로 기대했다.

<화학저널 2011/02/14>